

도로종목 출신 조호성·정종진, 편견을 깨다

마른 체격 도로·중장거리 출신
체질 개선 통해 근거리 최적화
조호성 47연승·정종진 50연승

아마추어 사이클 종목은 경륜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아마추어 종목 중 경륜에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1km 독주와 스프린터 종목이 꼽힌다. 또한 체질 개선을 통해 도로 종목 출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경륜 최강자의 자리를 꿰찬 선수들도 있다. 이들을 통해 아마추어 선수들이 어떠한 유형의 경륜선수로 탈바꿈했는지 알아본다.

●역대 경륜 강자, 1km 독주와 스프린터 출신 많다

‘경륜 황제’로 불렸던 8기 홍석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최강자였다. 데뷔 당시 1km 독주 출신답게 강력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한 바퀴 승부를 전매특허 삼아 승승장구했다. 데뷔 초창기 근지구력을 배가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1km 독주 훈련을 꼽기도 했다.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25기 임채빈과 23기 강호, 21기 황인혁·정하늘, 16기 이명현·이현구 등을 비롯해 8기



김민철, 11기 김현경, 13기 노태경·송경방, 4기 주광일, 2기 원창용 등 과거를 대표했던 강자들 모두 아마추어 시절 1km 독주를 소화했거나 명성을 날렸던 선수들이다. 1km 독주 출신들은 긴 거리 선행, 잦은 승부가 많거나 데뷔 초창기 특유의 근지구력을 바탕으로 선행에 강점을 보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스프린터 출신들도 종목 특성상 임기응변과 속도전에 강한 면모를 바탕으로 경륜에 빠른 적응력을 보였다. 21기 수석인 성낙송과 23기 전원규, 22기 최래선·김희준·정해민을 비롯해 9기 수석 김치범, 7기 수석 현병철과 4기 엄인영, 2기



김보현·정성기, 1기 수석 허은희 등 벨로드롬을 주름잡은 스프린터 출신들은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을 무기로 경기 운영에 남다른 능력을 발휘했다.

25기 임채빈은 1km 독주를 통해 다져진 근지구력과 스프린터를 통해 터득한 순발력 및 경주 운영 능력을 겸비해 데뷔전부터 경륜에 최적화된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종진, 도로 종목 출신 한계 뛰어넘다

도로 종목 출신 중 두각을 나타낸 선수는 11기 조호성이다. 트랙의 최강거리종목인 포인트 레이스와 도로 종목 모두

에서 최강자였다. 강력한 스테미너에 단거리 종목을 능가하는 파워와 순발력을 발휘하며 그랑프리 3연패 달성 및 47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러한 조호성의 기록을 경신한 선수도 도로 종목과 중장거리 출신인 20기 정종진이다. 그는 50연승(2017년 7월 7일~2018년 3월 24일)과 그랑프리 4연패(2016~2019년)를 달성하며 경륜 역사에 새장을 연 ‘경륜 지존’이다. 정종진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데뷔 이후 빠른 꺾는 고통을 감내하며 완성한 체질 개선 덕분이다. 도로 출신의 마른 몸에서 경륜에 최적화된 근육질 몸을 만드는데 성공하며 최강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설경석 최강경륜 편집장은 “아마추어 시절 트랙 종목을 소화한 선수들이 경륜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로 선수나 포인트, 제의 경기 등 중장거리 출신들로 정종진처럼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롭게 몸을 만들 경우에는 얼마든지 최강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8기 신은섭, 25기 중 도로 최강자 출신인 장경구 또한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선수로 향후 체질 개선에 성공할 경우, 벨로드롬에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륜·경정 임시휴장 7개월째
매출 손실액 약 1조3000억원

경륜·경정의 휴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2월 23일 임시 휴장한 이후 7개월을 넘어섰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임시 휴장과 함께 비상경영계획을 세워 일부 복리성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부서 운영비 및 사업추진비를 50% 이상 축소함으로써 경상경비를 30% 가까이 절감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 등을 통해 총 39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밖에도 조재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경영평가 성과급과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경륜경정 전 직원은 휴업(주 1회)을 시행하고 있다.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임시 휴장 기간 동안 소득이 전무한 경륜경정 선수를 대상으로 생계자금 무이자 대출과 무관중 시범경주를 각각 두 차례 시행했으며 경륜·경정장에 입점한 업체들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층 강화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경륜·경정장의 재개장 시기는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유 재원도 거의 바닥나 경영은 물론 공공재정과 각종 기금 지원 등에도 심각한 위기가 왔다.

실제 경륜경정의 매출 손실액은 올 22일 기준 약 1조3000억 원으로, 이런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연간 1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매출액은 현재까지 전년 동기보다 82%가량 줄어, 매년 납부하는 공공재정도 3000억 원 가량 감소하고 지난해 기준 423억 원을 지원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의 수익금은 전무할 전망이다.

경륜·경정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임시 휴장이 장기화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전 임직원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 재개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긴 어렵겠지만 하루빨리 확산세가 진정돼 부분 개장을 시작으로 점차 경륜·경정 사업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경정선수가 뽑은 최고의 경주는 ‘쿠리하라배’

2002년 원년 초대 챔피언 권명호
2012년 김계영 첫 여성선수 우승

현재 경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상경주는 스포츠월드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스포츠경향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와 특별경주인 쿠리하라배를 포함해 총 5개 대회다. 그 중 매해 연말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대상경주는 상급도 최대 규모여서 대상경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경주인 쿠리하라배도 그랑프리 대상경주 못지않게 경정선수들이 가장 우승하고 싶은 대상경주로 꼽힌다. 우리나라 경정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인물들 기리는 대회이기 때문이다. 쿠리하라

는 일본에서 31년(1966~1999년) 활동. 총 우승상금 약 110억 원) 동안 경정선수로 활약한 이후, 2001년 8월 경정훈련원 교관으로 1~3기 선수들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경정의 한 부분을 만든 인물이다. 경정 선수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쿠리하라배 기록들을 살펴본다.

●쿠리하라배 초대 챔피언은?

경정이 시작된 2002년 원년 초대 챔피언은 권명호(17기)다. 신인시절부터 1턴에서 노련한 경주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로 결승전 2코스에 출전해 과감한 휘감기 승부를 펼치며 첫 우승자라는 명예를 안았다. 2004년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 결승전 1코스에 진출해 인빠지기 전개로 우승을 거머쥐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2018년 쿠리하라배 특별경정 경주 모습

●최다 출전, 최다 우승자는?

쿠리하라배 최다 출전 선수는 최근 주춤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2010년까지 안정된 경주 운영을 펼친 권명호, 박현성(17기)과 다소 침체기를 보이는 어선규(47기), 현경정 최강자인 심상철(77기)이 나란히 5회 출전했다. 그 뒤를 이용석(17기), 서화모(1기), 정용진(17기), 김원태(17기), 박정아(37기)가 총 4회 출전 중이다.

현재까지는 2관왕이 최다 우승이다. 권명호가 총 5회 출전해 2승(2002, 2004년)을 거뒀고, 장영태(17기)가 3회 출전해 2승(2014, 2016년)했다. 장영태는 2016년 F(사전 출발위반) 제재로 개인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었는데 쿠리하라배 우승과 함께 예전의 기량을 되찾는 계기가 됐다.

●김계영, 여자선수 우승 유일

쿠리하라배에서 금녀의 벽을 허문 첫 주인공은 김계영(67기)이다. 신인 때부터 불안한 스타트와 선회력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2012년은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스타트(평균 0.31초) 감은 평범하지만 선회력이 살아나며 본인의 경주를 차분히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그해 9월 13일 헤럴드경제배와 10월 25일 쿠리하라배에서 우승했다. 이후 문안나(37기)가 2016년과 2017년에, 박정아(37기)가 2018년 쿠리하라배에서 3위를 기록했다. 정용운 기자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1조원 기부 TV’(1, 2부)
동영상 시청 후 문의 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본소득 150만원** 평생지급

동물병원 및 각 등록처에서 등록한 개,고양이, 1가구 1마리만 **2020년 9월 28일까지** 선착순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7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총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 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텔레이거부 품앗이게

문의처

세계교회대신 '총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992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서울 백인조 010-6462-6712 / 역삼 한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취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명배 010-8290-8801 / 강영석 010-3274-5289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영숙 010-5118-5263 / 김민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추영단 010-4741-7008
초원교 010-7374-4111 / 서재윤 010-8770-2935 ●대전 김원구 010-8029-0059 / 김용환 010-3742-5998 / 진달란 010-2391-8259 ●대구 민영희 010-4846-4950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창원 이혜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천안 김태익 010-6258-3510 / 오영숙 010-8804-3424
●인천 박준표 010-3227-0993 / 주만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포동 010-8488-2999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이천 허현석 010-4707-2659
한선희 010-5177-9479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수원 한민드래머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명대 010-8005-3616
●경기 남부 함베르토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영광 교영철 010-5463-6952 ●충북 송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하위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1644-6733